

참사람 36.5°C

Vol. 30 | 2023년 7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CONTENTS 목차

발행일

2023년 7월 3일 월요일
Monthly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

참사람 36.5°C 온라인
chamsaram.org



Cover Story

최화정 제7대 교보교육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 취임했습니다.
7월호 '참사람을 말하다'에서는
최화정 신임 이사장을 모시고,
그의 교육 철학과 재단 운영에 관한
포부를 들었습니다.



04

참사람을 말하다

"매사 진솔하게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과 중심을 잃지 않는
이가 참사람"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신임 이사장 인터뷰



10

책으로, 참사람으로

'마음의 일'을 읽고
마음의 일이란?

글 _ 정심여자중고등학교 기OO

오윤주

수원 수일여중 교사/소설가



16

교보교육재단 소식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소통의 장!
'교보 체육꿈나무 장학생
가족사랑캠프'



08

내가 만난 참사람 _ 에세이

낮은 곳에서의 소중한 만남

글 _ 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성백광



12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교보교육재단이 추천하는
올해의 책갈피 청소년 인성도서



18

청소년 응원 프로젝트

네컷툰 수상작품 소개



“매사 진솔하게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과 중심을 잊지 않는 이가 참사람”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신임 이사장 인터뷰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신임 이사장
주요약력

- | | |
|-----------|---------------------------------|
| 2023.06~ | 교보교육재단 이사장 |
| 2022 | 교보생명 노무지원실장 |
| 2017~2021 | 교보생명 방카슈랑스 본부장 교보생명 부산FP 본부장 |
| 2013~2014 | 교보생명 영업교육팀 팀장 |

2023년 6월 12일, 교보교육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최화정 前교보생명 노무지원실장님께서 취임하였습니다.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화정 이사장님은 교보생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교보의 인재양성 철학, 그리고 교육 철학을 일선 현장에서 실천해왔습니다.

7월호 ‘참사를 말하다’는 최화정 신임 이사장님의

교육철학과 재단운영에 대한 포부를 듣고자 합니다.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하시게 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육자 집안에서 성장한 덕에 어린 시절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사회의 참사를 키우고자 노력하는 교보교육재단의 비전에 공감했고, 교육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사람 육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많은 부분에서 고민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

세계 최초로 교육과 보험을
접목하여 ‘교육보험’을 창안한
대산 신용호 선생은 기업가인
동시에 교육지도자이셨습니다.
교보생명에서 경험하신
대산의 교육철학이 궁금합니다.

창립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는 격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스승을 찾을 수 있고, 배움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지요. 이에 따라 교보만의 인재 육성 기관인 ‘계성원’을 비롯해 다양한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하여 임직원의 성장을 견인하셨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교육문화공간인 교보문고를 설립하는 등 국민의 교육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교보를 ‘학습하는 조직’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이처럼 창립자님은 사회인으로 저에게 큰 스승이셨으며, 인재 육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분입니다.

교육은 변화의 시작점이자 출발점

그렇다면 교육은 조직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날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사람이든 조직이든 매일 배우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학습하는 인간(homo eruditio)만이 시대 발전에 발맞추어 능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지요.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시작점은 다름 아닌 ‘교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양극화, 그리고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

이렇게 교육이 중요하지만
해결해야 할 부분 역시 많습니다.
우리사회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째는 교육 양극화입니다. 지난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수준 및 배경이 대학 진학에도 차이를 낸다고 합니다. 교육의 양극화는 곧 사회의 양극화이며 국가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학생 또한 한 인간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마땅히 자기표현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근래 들어 수업과 생활 지도 과정에서 이러한 두 권리가 부딪히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문제들은 결국 입시 위주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겠지요. 참사람을 키우는 ‘전인교육’을 지향할 때, 이러한 갈등 또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옛 기억을 떠올려주세요.
이사장님께서는 청소년 시기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셨나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나?’란 질문을 제 자신에게 많이 던졌습니다. 최근 한 기관에서 진행한 청소년의 고민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이 ‘진로·적성에 대한 방향’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나의 존재 이유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시작되는 시기라서 그렇겠지요. 청소년들의 걱정에 공감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재단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청소년 여러분은 모두 무궁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내 안의 잠재력을 믿고 도전하여 자신만의 꿈과 미래의 비전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험은 필수입니다. 그러한 경험치를 통해 깨달은 소중한 가치관을 하나의 나침반으로 삼아, 일관된 삶을 일구어나가다 보면 반드시 ‘참사람’으로 성장해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고 소중한 청춘을 저와 교보교육재단이 응원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군요.

묵묵히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일

자녀를 참사람으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키우며 깨달은 핵심 두 가지가 바로 ‘믿음’,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자녀를 기다려주면 아이들은 능동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내적 힘을 키워가게 되지요.

2012년,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왔을 때 십대초반이었던 아이는 새로운 터전,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걱정과 불안감을 표출했습니



다. 이때 저는 설불리 다그치는 대신 묵묵히 경청하고 지지하며, 아이가 가진 힘을 믿고 직접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경험을 통해 아이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참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재단은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재단의 참사람은 ‘정식,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 여기에 저는 ‘매사 진솔하게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과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스스로 맡은 역할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뚜렷한 중심을 갖춘 사람이라면 어떤 좌절이나 난관을 만나도 해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출연사 임직원, 컨설턴트와 함께 하는

‘참사람’ 가치의 확산과 전파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서^Q
그리고 계신 재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단의 이해관계자(교육관련 종사자 및 청소년)를 비롯, 출연사인 교보생명과 긴밀히 협력하여 참사람 육성의 가치 확산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재단이 시대에 맞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사업들이 더욱 잘 운영되게끔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무엇보다 출연사의 임직원과 컨설턴트에게 재단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교보가 추구하는 사회공헌의 진정성을 소통하고 전파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낮은 곳에서의 소중한 만남

글 _ 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성백광**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그해 겨울, 읍내 장날에 아버지가 낡고 녹이 슨 중고 자전거 한 대를 사 오셨다.

이후 겨울 방학 내내 아버지로부터 자전거 타는 법을 애면글면 하며 호되게 배웠다. 넘어지려고 하면 다칠세라 아버지는 후딱 달려와 자전거 꼬무니를 꽉 잡아 주시곤 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동안 난 수없이 넘어지고 심지어 좁다란 샛골목 담벼락에 내박치듯 부딪치고 했음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나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많이 다치셨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겨울방학이 끝나가기 전에 난 홀로 자전거 타는 법을 완벽하게 익혔다. 그리고 나서 3월 난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아버지가 사준 우리 집 보물 1호인 중고 자전거를 타고 아침 댓바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한 시간 남짓 등굣길을 홀로 열심히 폐달을 밟았다.

간혹 찌걱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도착할 즈음이면 상하 교복이 온통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에는 고스란히 비를 맞아야만 했다.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 당시 담임선생님께서 상급학교 진학 관련 상담을 위해 날 교무실로 불렀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난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누군가와 얘기를 나눈다거나 나 스스로 고민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남들처럼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저 읍내에 있는 조그마한 고등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동네 형들의 악습을 서둘러 흉내 낼 요량뿐이었다. 당시 부모님을 비롯한 내 주변에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거나 혹은 나의 진학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담임선생님과 두 번째 상담이 있던 날, 선생님은 벼른 듯이 내게 교육환경이 좀 더 좋은 대도시로 진학할 것을 은연 중 권유했다. 그러면서 대뜸 우리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식으로 말씀을 이어갔다.

그날 웨틀비틀 몽그작대면서 힘겹게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이 사실을 어물거리며 부모님께 얘기했다. 오랜 세월 박행한 삶을 살아오신 아버지는 일순 망연하다는 듯이 병벙히 서서 고개를 갸웃대다가 우뚝한 눈을 연신 깔깔거리며 쉽게 입을 떼지 못하시고 뜨락 위를 맨발로 벼정거리기만 했다. 넉넉하지 못한 빠듯한 살림에 내가 도시로 나가 공부한다는 게 우선 경제적으로 여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버지도 짐짓 직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토요일이 되자 담임 선생님께서 시골 원행버스를 타고 멀찌이 떨어진 아랫마을에 내려서 버스가 다니지 않는 우리 동네까지 한참을 걸어 오후 느지막이 도착했다.

온갖 살림살이들이 너저분한 시골 촌집까지 선생님이 직접 왔다는 소식에 부모님이 흥칫 놀라 밭에서 일하던 것을 펴뜩 멈추고 단숨에 집으로 달려오셨다. 어머니는 우왕좌왕하시며 곧바로 저녁 밥상을 한 상 가득 차리고는 주막으로 달려가 커다란 주전자에 막걸리를 듬뿍 담아오셨다.

그날 아버지와 선생님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 저 말들을 얼뜨려 막걸리 한 주전자로는 언뜻 모자랄 정도로 어지간히도 오랫동안 두 분이서 체면치레도 없이 마치 구면지기처럼 많은 얘기를 장황하게 주고받으셨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술에서 깨 아버지께서 설핏 눈을 치뜨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생님과 미리감차 다 얘기했으니까 내일부터 읍내 있는 담임

선생님 집에서 당분간 학교
다니도록 하거라.”

아버지 말에 옆에서 이를 멀뚱히 지
켜보던 어머니는 다소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참례도 못하시고 그
냥 얼굴을 짱당그린 채 입술
만 움죽 내밀었다. 어쨌든
선생님이 우리 집을 다녀가
신 이후, 난 아버지의 말씀
에 따라 돌연 읍내에 있는 선생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진득하게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당시 선생님께서는 혼자 하숙하고 있었는데 마침 방이 두 개였다. 내가 머물렀던 방은 조붓한 골목 외부 담벼락과 딱 붙어 있는 조막만한 방이었다. 밤이면 마치 달이라도 손에 잡힐 만큼
좁다란 골목 끄트머리에 위치하여 담장 밖에서 방안이 훤히 다
보이는 쪼끄마한 유리 창문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밤이면 그곳
으로 발그레한 달빛이 훤히 들어와 방안이 찬연하게 빛났다.

창밖으로 밤낮 행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다 들려와 무서울 때도 있었지만, 난 그곳에서 처음으로 선생님이 사준 짜장면을 먹게 되었는데 그때 먹었던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짜장면을 여태 먹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당시 선생님을 따라 극장이라는 곳에 가서 난생처음으로 영화도 봤다. 그해 가을 부모님께서는 손수 수확한 농작물을 손수레에 한가득 빼곡히싣고 이 먼 곳까지 직접 가져오셨다. 부모님께서는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라도 벌충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난 대구로 입학원서를 쓰게 되었다.

시험 전날에는 담임선생님 가족 분들이 사는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다음 날 선생님을 따라 시험장으로 갔다. 그리고 나서 머잖아 겨울 방학이 시작되면서 선생님과 나 사이에 뜨음하던 시간이 한참 지나... 날씨가 끄무레한 차가운 겨울 어느 날, 전화



기가 없던 시절 느닷없이
선생님께서 시골 우리 집
으로 찾아오셔서 엉글거리
는 아기처럼 빵그레 웃으시며
고등학교 합격통지서를 내게
건네주셨다.

이렇게 해서 겨울이 끝나
고 다시 봄이 시작될 무렵

난 대구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 근처 후미진 하늘 모퉁이 허름하기 그지없는 구중 중한 주택가에 방 하나를 구했다. 내가 고등학교 삼 년 동안 머물렀던 이곳 자취방 역시도 당시 선생님이 직접 힘들게 알음으로 구해 주었던, 가슴에 오래도록 뭉클함이 담긴 방이었다.

이후 줄곧 혼자서 자취하면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선생님은 여전히 내가 머물고 있던 자취방을 연득없이 찾아와 빵이랑 우유 등 당시로서는 최고의 간식들을 직접 쟁겨주시며 항상 힘이 되는 좋은 말들로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담임선생님이 가난에 짚들었던 우리 부모님을 대신해 내 미래를 정해 주신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중학교 3학년 그 때 만난 담임선생님이야말로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다.

만일 그 당시 더없이 온량하고 살뜰하기만 했던 담임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분명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이렇듯 일순간에 찾아오나 보다. 그래서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인간의 운명적인 삶이 결정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진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워 해야 할 따름이다. 그래서 행여 오늘도 나의 옷깃을 향긋이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난 그 사람에게 자신심을 다해 다가가기로 마음먹었다.

'마음의 일'을 읽고



마음의 일이란?



글 _ 정심여자중고등학교 기OO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엄마! 나 엄마 딸 00이야. 이번에 교보에서 전국 독서편지 공모전을 하는데, 나도 참여하게 되었어. 추천도서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과 감상을, 전하고 싶은 이에게 편지로 쓰면 된다고 해. 책을 읽는데 엄마 생각이 엄청 나서 엄마한테 쓰기로 결정했어. 감동이지? 쓰기 전까지는 별 생각 없었는데, 막상 쓰려니까 괜히 좀 긴장되고 그러네. 서툰 글 솜씨로 쓰는 거지만, 진심을 다하고 있으니까 많이 부족해도 이해해줘.

요새 나의 고민, 걱정거리 중에 가장 큰 2가지가 장래희망과 인간관계인데, 무슨 일인지 그 두 가지 고민에 관한 책들이 하나씩 있더라. 그런데 '마음의 일'이라는 책 제목이 나에게 엄청 무게있게 느껴져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어. 책을 읽지도 않았는데 '마음의 일'이란 무엇일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이를 만에 책을 다 읽어버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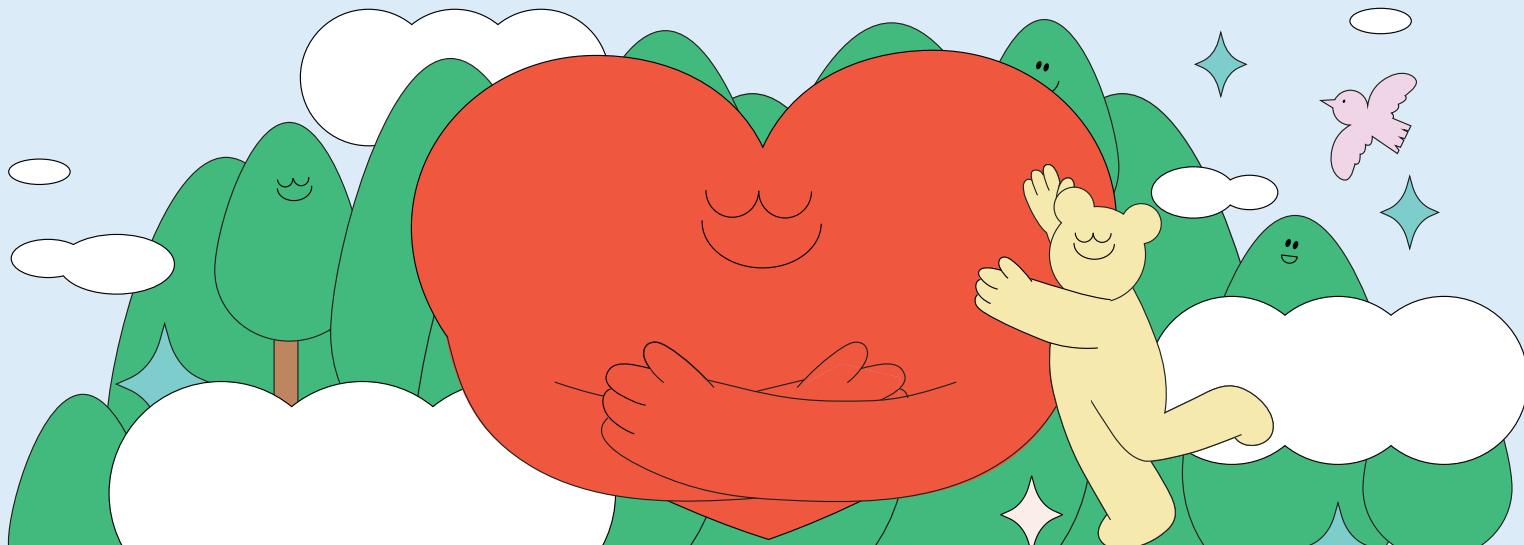
오은 시인님이 장래희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진심들과 동심같은 것들이 막 느껴지는 기분이었어. 어떤 시는 읽으면서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시는 엄청나게 공감이 가기도 하고, 어떤 시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깨달음을 주기도 하더라.

보통 사람들에게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물으면 직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잖아?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런데 책의 맨 뒷장에 작가의 말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어릴 적엔 장래 희망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었다..중략..돌이켜 보니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다. 어른이 되는 일이 한없이 멀게 느껴졌기 때문에 가능한 상상이었다."

엄청나지 않아? 나는 다른 내용들보다 이 세 줄이 정말 쇼크처럼 와 닿았어.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장래를 상상해본 적이 있었던가? 17살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내 주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데...사회로 나가면 무엇을 해야 하나 많이 걱정했거든.

친구들은 환경이 뒷받침해주지만 난 그럴 수 없으니까...자립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어. 그렇다보니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 곧 고등학교 2학년이고, 더 지나면 성인인데...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하기에 2년이라는 시간을 쓰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 무엇을 할 건지는 빨리 정해야 하고, 범위는 제한되어 있고, 부담감은 커지고...



이런 압박 속에서 장래희망을 생각하다보니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 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퇴원 후에 무엇을 할 거냐고 물었을 때, 닥치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 이런 고민까지 엄마에게 들끼고 싶지 않았거든.

하루하루 깊이 생각하면서 결정해봐야겠다고 했었는데, 그럴 수록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뒤죽박죽 엉켜서 더 복잡해지더라. 그래서 저 문장과 시들이 내 머리 속을 질서 있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 내가 모자라서, 못나서가 아니라 어른이 되는 일이 눈앞에 닥치고 있으니까 그런거라고, 그렇게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시들 중 <장래희망>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통해 용기를 많이 얻었어. 그 시를 10번도 넘게 읽었어. 처음 읽었을 때는 어렵기만 했는데, 읽으면 읽을 수록 이 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같아. 신기한 건, 5번 읽었을 때와 10번 읽었을 때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야. 글의 힘은 참 대단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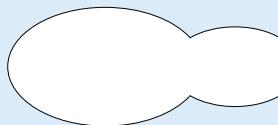
나는 시를 읽고 이렇게 생각했어. 내 장래와 희망이 불완전하고 위태롭더라도 좌절하지 말자고... 책의 내용처럼 나는 오늘을 살고, 나는 오늘 피어나고, 나는 오늘의 나이니까 스스로를 믿자고. '나도 내 마음과 감정을 잘 몰라서 그렇게 헤맸던거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

마음의 일이란... 곰곰히 생각해봐도 무엇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어려운 단어야. 마음이 하는 일, 마음이 하고 싶은 일, 마음이 해야하는 일... 너무 많아! 하지만 내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작가가 이야기하는 마음의 일의 '마음'은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나'를 지칭한다고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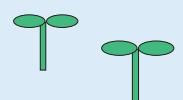
작가님은 장래희망이 단순히 직업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80일 간의 세계 일주를 하는 것도,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을 것도,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하는 것도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장래희망을 생각하신다고 하더라.

엄마도 마음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어. 나는 옳고 그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책을 읽고서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고, 스스로를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짓지 않을 용기가 생긴 것 같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나 스스로를 믿어주면, 엄마도 나를 잘 지켜봐주면,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장래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나도 이제 쉽게 흔들리지 않게, 꼭꼭하게 잘 버티면서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작가님처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장래희망이라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내 나름대로의 장래희망을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엄마도 서로의 미래를 응원해! 늘 건강하자.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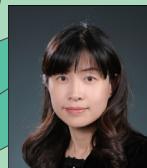
'마음의 일'은 어떤 책? 내 마음의 결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 읽는 시!



<마음의 일>은 시인이 청소년의 마음으로 돌아가, 그 마음의 결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써낸 시집입니다. 겉보기에 우리 일상은 매일매일 소소하고 어쩌면 사소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종종 커다란 소용돌이가, 깊은 협곡들이, 깜깜한 밤들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픈, 때로는 놀랍고 때로는 우울한 마음의 일들이 마치 내 이야기를 그대로 읊겨 적은 듯 시로 고스란히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청소년이라면 '맞아 그렇지!'하면서, 어른이라면 '맞아, 그랬지!'하면서 시집을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윤주 수원 수일여중 교사/소설가

책 읽기를 좋아하던 여자아이는 여전히 책 읽기를 좋아하고 가끔 쓰기도 하며,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는 국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읽는 삶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도 또 생의 한 페이지를 책과 함께 열어갑니다.



교보교육재단이 추천하는 올해의 책갈피 청소년 인성도서

내가 읽어온 자취를 표시하고,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알려주는 책갈피. 그런 책갈피처럼 '책'은 성찰과 깨달음의 갈피를 안내하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참다운 삶과 올바른 인성의 갈피를 찾고
참사람으로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교사 및 작가, 연구자, 도서 전문가 등과 함께
'책갈피 청소년 인성도서'를 선정, 발표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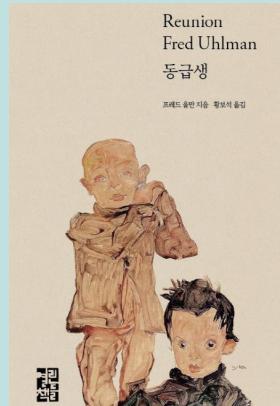
2023년 올해도 청소년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줄
12권의 인성도서를 소개합니다.



바퀴 빌라의 여름방학

저자. 마리안네 카우린
출판사. 여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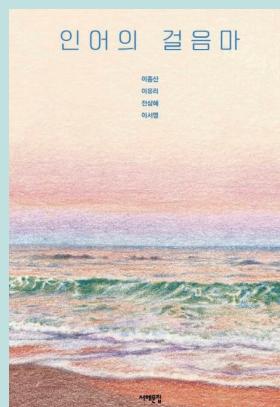
12살 이나의 우정과 사랑, 인싸
와 아싸, 소셜 미디어에서의 거
짓과 진실, 빈부격차의 갈등 등
을 통해 현 시대 청소년들의 삶
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동급생

저자. 프레드 울만
출판사. 열린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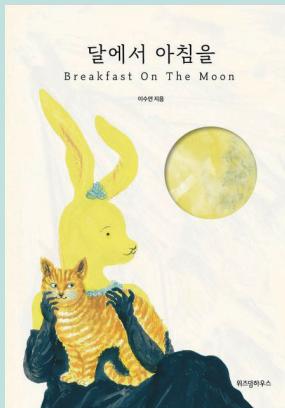
1930년대 독일을 배경으로 16
살 유대인 소년과 독일 귀족 소
년의 우정, 그리고 그 시절의 정
경은 독자들에게 오래도록 여운
을 남긴다.



인어의 걸음마

저자. 이종산 외
출판사. 서해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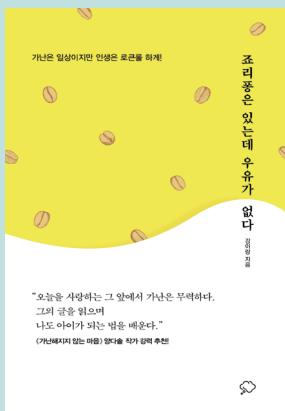
십대 주인공들을 둘러싼 장애의
문제를 SF로 풀어냈다.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며 질문을 던진다.



달에서 아침을

저자. 이수현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학교폭력의 문제를 방관자의 시선으로 응시한 그림책.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인 자신에 대한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 변화와 갈등 등을 서정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려냈다.



조리퐁은 있는데 우유가 없다

저자. 강이랑
출판사. 좋은생각

조리퐁은 있는데 부어서 마실 우유가 없을 정도의 가난이지만, 결코 비참하거나 슬프지 않은 않다. 서로 연대하고 다른을 인정하며 비우고 나누는 하루하루가 로큰롤하다.



다르게 함께 살기: 인간과 동물

저자. 이동신
출판사. 이다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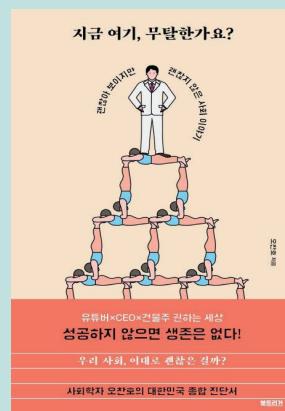
인간중심주의 세계에서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하고 동물과 윤리적 관계 맺기에 대한 성찰과 제안을 '소통, 관계, 환경, 세계관, 육식'의 다섯 가지 주제로 풀었다.



최소한의 심리학

저자. 인현진 외
출판사. 가나출판사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과 고민에 대한 대응방법과 도움 요청 방법, 단단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용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지금 여기, 무탈한가요?

저자. 오찬호
출판사. 북트리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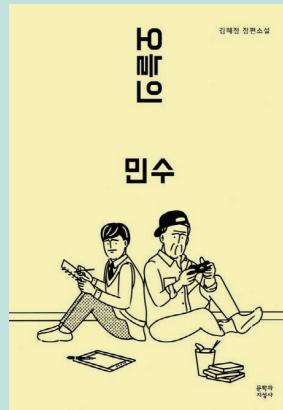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화두를 던지며, 친구들과 관련 쟁점을 토론하면서 무탈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천 개의 파랑

저자. 천선란
출판사. 허블

인간처럼 사고하는 경마용 기수 휴머노이드 '콜리'와 파트너인 경주마 '투데이', 그리고 주인공 연재의 가족들이 만들어 가는 찬란한 이야기. 한 방향으로만 빠르게 달려 지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오늘의 민수

저자. 김혜정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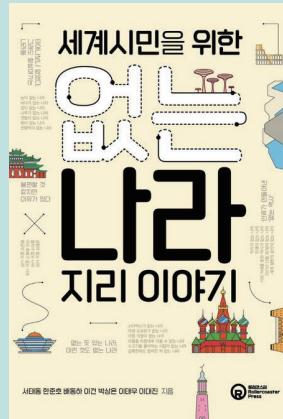
좋아하는 것만 하는 62세 철부지 어른 김민수, 나이에 비해 조숙해진 애어른 15세 주민수의 좌충우돌 성장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스타피시

저자. 리사핍스
출판사. 아르테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13살 엘리는 자기 몸을 향한 차별적 시선에 상처받기도 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나를 지키고,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세계시민을 위한 없는 나라 지리 이야기

저자. 서태동 외
출판사. 롤러코스터

한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 외에도 '없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 '없다'는 것이 꼭 결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하게 된 나라도 있다. 세계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책.



올해의 책갈피 인성도서

선정 심사평

심사위원: 신운선(독서교육 전문가 및 작가)

이은주(보평고등학교 사서교사)

2023년 책갈피 인성 도서의 심사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걸 뽑는다”가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문제나 성장에 필요한 화두를 드러내어 청소년의 창의적 사고와 심미적 감정, 자기 관리, 인성, 인문학적 감수성 등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을 골라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책을 매개로 청소년들과 호흡하며 소통해 온 심사위원들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청소년에게 책을 권하는 어른의 입장에서 책의 주제나 내용, 형식 등을 가늠했습니다.

1차 심사를 거쳐 후보에 올라온 스무 권 중에 2차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회의를 했습니다. 2차 심사 기준은 1차 심사 기준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인성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책이되 소설, 인문학, 사회학, 에세이, 그림책 등 도서 장르의 다양성을 지향했습니다. 소설은 장편과 단편, SF, 고전 등을 고루 선정했으며 인문학과 사회학은 철학, 상담심리, 교양, 사회 일반 등 각 도서의 주제의식이 겹치지 않게 했습니다. 출판사나 작가가 겹치지 않도록 하면서 국내 작품과 해외 작품의 비율도 살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며 각 작품이 지닌 가치와 청소년 독자들에게 유용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긴 회의와 고심 끝에 최종 열두 권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열두 권은 빈부격차, 학교폭력, 외모 등 지금을 살

아가는 청소년의 고민과 갈등을 보여주는 작품(〈바퀴 빌라의 여름방학〉 〈달에서 아침을〉 〈스타피시〉), 과거와 미래, 혹은 가상의 시공간에서 편견에 갇히거나 넘어서며 진정한 우정과 사랑, 인간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응시하는 작품(〈동급생〉 〈인어의 결음마〉 〈천 개의 파랑〉),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밝은 눈으로 들여다보게 하여 우리를 각성시키고 세계관을 확장시키게 하는 작품(〈다르게 함께 살기: 인간과 동물〉 〈죠리퐁은 있는데 우유가 없다〉 〈지금 여기, 무탈한가요?〉 〈세계 시민을 위한 없는 나라 자리 이야기〉),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위기, 미래의 진로 고민을 직면하며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게 하는 작품(〈최소한의 심리학〉 〈오늘의 민수〉)입니다. 이 작품들은 편의상 몇 개의 주제로 묶었지만 독자의 감상과 관점에 따라 더 많은 의미와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요즘 독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교보교육재단에서 마련한 책갈피 인성 도서 행사를 통해 즐거움과 휴식을 느끼며 삶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내 안의 또 다른 나, 나와 다른 세계와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 나의 내면을 용승하게 하고 주변과 세계를 보는 눈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소통의 장! **'교보 체육꿈나무 장학생 가족사랑캠프'**



더 넓은 세상으로 도약을 앞둔 명예장학생 선배를 만나!

6월 3~4일 화창한 주말, 교보 체육꿈나무 장학생과
가족들이 국립춘천숲체원에 모였습니다.
자연 속에서 뛰놀며 종목을 넘나드는 우정을 보여준
'체육꿈나무 가족사랑캠프'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캠프 첫 순서로 1기 박가현 장학생에게 명예장학증서와 특별격려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 모두 프로 탁구선수로서 멋지게 활약할 박가현 선수를 힘차게 응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여홍철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를 모시고 특강을 들었습



니다. 여 교수는 '성공은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라는 주제로 운동선수로서 가져야 할 소양과 자기관리법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현 국가대표 체조선수인 여서정 선수를 키운 부모로서 현실적인 조언도 전했습니다.

거침없는 도전정신! 산림레포츠까지 정복한 체육꿈나무들

체육 꿈나무와 가족들은 암벽등반과 어드벤처 모험숲 두 가지 산림레포츠에 도전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안전장비를 꼼꼼히 점검한 후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다들 처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힘들고 무서운 순간에도 서로 힘을 북돋아 주며 함께하다 보니, 종목은 달라도 어느새 다들 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재단이 개발한 특특톡 공감시간 가족소통 보드게임에 참여했습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마음을 연 뒤, 돌, 솔방울 등의 자연물을 이용한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가족간 서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된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놀이로 습득하는 협동심과 진로 탐색 경험

체육꿈나무 가족사랑캠프의 마지막 코너는 지도와 나침반을 보며 숲과 계곡 곳곳에 숨겨진 힌트를 찾는 숲오리엔티어링 활동이었습니다. 팀 별로 가지각색의 전략으로 게임을 즐겼는데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숲을 누비며 웃음 가득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념사진을 끝으로 배려와 협동이 넘치는 1박2일의 즐거운 캠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보 체육꿈나무 장학생들이 지금처럼 의젓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구슬을 깨도 꿈을 이루다

글&그림. 예원



주제:
내 주변의
고마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대구 대진고등학교 이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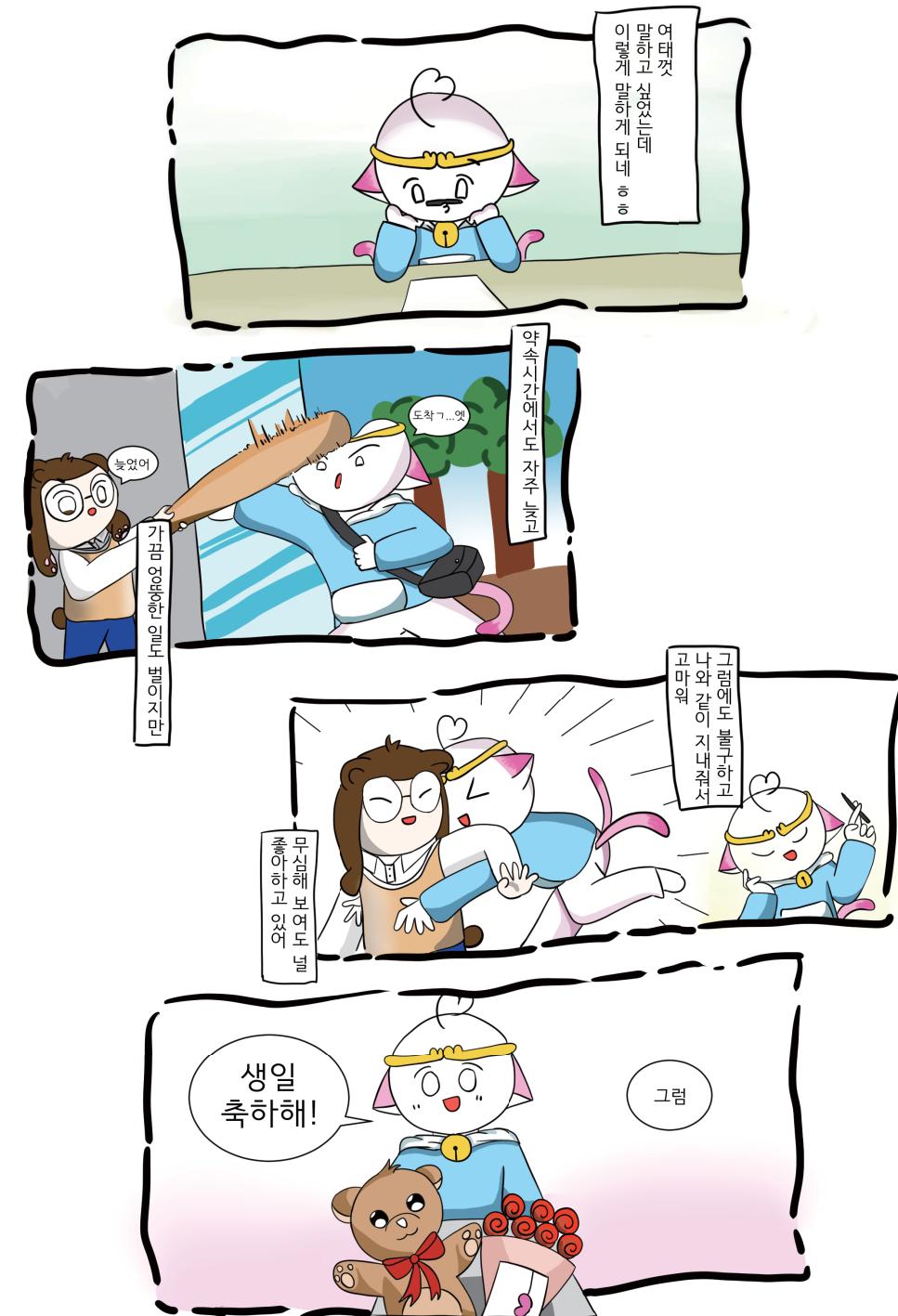


원하는 꿈이 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에 좌절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의 심정을 '꿈'이 '구슬'에 갇혀있는 상징으로 연출해보았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구슬을 건네주며 포기하지 말라고 힘을 북돋아주셨고, 이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구슬을 깨고 그 안에 담긴 꿈을 만날 수 있었다. 주저하던 나를 믿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셨던 부모님께 감사했던 그때의 경험을 그려보았다.

생일편지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글&그림. 은비



삼천포여자중학교 이은비



나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의 생일이 얼마 후 찾아올 예정이다. 생일을 맞이한 그 친구에게 나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전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려보았다. 조금은 소심한 탓에 평소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 미안한 마음을 여기 모두 담았다. 친구에게 나의 마음이 꼭 전달되었으면 하다.

참사람 36.5°C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